

## 哲學에 影響을 끼친 科學者에 對하야(6)

金容權

그와 같이 十九世紀 中葉의 英國에서는 生物 進化論을 基礎로 하는 哲學 學風이 一般으로 流行하고 잇었으나 佛獨에서는 其 初는 만드시 그러치는 아니 하엿었다. 爲先 佛國의 科學的 哲學에 關한 學風이 十八世紀의 數學的 物理學的 機械觀을 繼承하고 잇든 바는 『콘트』의 實證哲學에 其好 代表者를 得한 바로써 明示되어있다. 『콘트』는 其初에 工科에 뜻 두어 其基礎學으로 數學的 理學을 學修하엿으므로 其方法은 後에 이르기까지 全體의 研究法에 의 存在한 것이다.

社會學을 처음에는 社會的, 物理學이라 名命하엿었다. 함은 其一例로 함에 走할 것이다. 社會學은 其後『콘트』의 實證主義보다도 더한 □社會 實證的으로며여 土俗學 人類學 等과 接近하야 왓으므로 이 點에서는 좀 生産物學型으로 된 곳도 했다. 그러나 其 諸 社會的 法則 例컨대 模倣의 法則이라든가 分有의 法則이라든가 하는 것을 세우는 것은 宛然한 數學的 構成法이다. 一方 心理學이 醫學 就中 精神病學과 連結하는 點에 잇어서 또 生物學型을 보히고 잇지만, 他方으로는 또 依然히 物理的 實驗法에 置重하는 學風도 있다. 이런 心理學, 社會學을 基礎로 하는 諸精神科學에 잇어서도 또한 同様の 考察을 할 수가 앓지만 이런 點에서 『크로-뜨, 베루나-르』의 醫學 上에서 實驗的 方法論의 影響을 否定하지 못할 것이다. 但佛國에는 元來 科學的 傾向과 對立하는 形而上學도 잇지만 이것도 또한 科學을 超越하기 爲하야 何等의 科學을 前提로 하는 것이며 이 點에 잇어서 前記二型 中 어느 것을 주로 한다는 別이엇을 더이다. 그러나 『□그손』의 境遇에서 볼 수 잇는 바와 같이 其出發點은 實驗 心理學에서의 物理學 方法의 使用을 超越하며 또 時間의 數學 物理學的 概念을 超越코자 하는 바에 科學의 物理學的 型을 念頭に 둔 바를 示現하며 또 一方으로 生物 進化論者의 所說을 否定한 創造的 進化를 說破하는 곳에서 生物學的 科學을 哲學에 依하야 『아우프헤-벤』할 것이라 함을 明示하엿었다. 卽 그와 같이 兩型的 科學은 『□그손』哲學의 前提로 承

認할만한 것이지만 더욱이 生物學的 說明에 慊焉치 못한 點은 畢竟 그 物理的 機械觀에 合致하는 點에 잇는 것이므로 이 境遇에 잇어서도 佛國學風의 根柢에 存在한 物理學 型이 科學의 □□點으로 되어있다고 하여도 조흔 것이다.

要컨대 科學이 哲學의 基礎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依하여 超越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不問하고 이 境遇의 科學은 近世 初期의 精神을 傳한 物理學 型이 主要한 位置을 占有한 것이다. 따라서 또 佛國에서는 哲學에 影響하였다 함보다도 차라리 스스로 『프라톤』型 哲學의 一代表者가 될 수 잇었던 『안카레)마』 같은 數學者 大文學者, 物理學者를 生하게 된 것이다.

轉하여 獨逸 十九世紀 後半 以後의 狀況을 概觀하면 이것에도 또한 一型의 科學的 影響의 錯綜하여 結局 第一型으로 歸함을 見할 수 있다. 爲先 十九世紀 中葉에 잇어서는 前代의 形而上學□□의 後를 承하여 科學이 스스로 哲學에 代코자하며 或은 科學으로부터 類推하여 그것을 超越한 곳에서 哲學의 領域을 求코자 하는 者가 생기었다. 前者를 便宜 上 科學的 哲學이라 命名하거니와 其 內容은 簡單히 말하면 唯物論에 不過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르던 者는 『뵤히나』와 같은 醫家와 其他 『휘그트·모레숫트』 등과 같은 生理學者가 잇지만 그들은 모다 其 方法은 數學 物理學的 學風을 脫出치 못하였다. 一方으로 科學에서 나아가 그것을 超越코자하는 者를 科學的 形而上學이라한다. 其中에서 干先 醫家 出身인 『룻세』物理學으로 붙어 나온 『뤼히나』 등을 代表者로 하면 거기에 二型을 分得할 수가 있다. 卽 이 點에서는 二型이 多少區別을 保有하여잇는 것이다. 이 對立은 조금 後年에 屬한 學者中에 잇어서는 生物學的 材料로부터 類推하는 『할트만』의 無意識哲學과 物理學의 方法에 依한 實驗的 心理學을 出發點으로한 『분트』와의 對立에 잇어서도 幾分間 覺知할 수가 있다. 但 『할트만』은 처음에 그가 砲兵將校였으므로 科學的 素養으로 말하면 차라리 物理學 型이며 『분트』는 元來 醫學을 修學하였으므로 차라리 生物學 型이어야 할 것인데 그 哲學의 傾向은 其素養과 反對가 되어 있다. 科學的 哲學의 後繼者라 할만한 『헛켈』은 生物學的 出身인데도 不拘하고 그는 그 哲學觀이 機械觀과 一致하며 이 點에 잇어서는 化學 或은 物理學으로 붙어 나온 『오스트왈트』或은 『맛하』 등과 結局 同一한 物理學型이라고 할 수가 있다. 要컨대 이 境遇에 잇어서도 若干의 例外를 除去하면 物理學 型, 生物學 型의 區別은 徹底하게 하기가 困難하리라고 생각될 것이다.

이것을 最近의 哲學諸派에 就하여 보면 新『칸트』派가 『칸트』에게 忠實한

限, 『칸트』가 認定한 科學에 結合하는 것이 當然한 것인데 가장 잘 그 뜻을 보인 것은 所謂 『마-루뿌루크』派의 『코-헨』-, 『나돌프』等이다. 是等은 數學 物理學을 標準的 科學으로 보고 其基礎定置를 哲學의 任務로 삼는 것이다. 此에 比하면 文化科學의 特性을 力說하는 所謂 西南學派의 『인델반트, 릿카-트』로서는 物理學 型 以外의 科學을 說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 生物學 型이라고도 할 수가 없고, 지금 自然科學을 論하는 境遇에는 問題 밖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現象學派의 祖 『훗사-루』까지도 物理學 型으로 指目하면 或은 異議를 품을 者가 잇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 出發點은 數學研究에 잇엇든 것은 그 □密한 觀念이 全然數學的이엿음을 생각하면 반드시 不當한 것이라고도 指目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哲學에 對하여 科學者 中 何人이 가장 만히 影響을 끼치엇는가 함에 對하여는 이것을 決定하기가 어렵지만 近代科學의 全體라 함으로써 그에 對答하는 수 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또 所謂 新興 物理學도 諸種의 新數學도 모다 幾分の 影響을 今日以後의 哲學에 및일 것이 豫期되는 바이다.

『뉴-톤』에 對한 『칸트』와 같은 哲學者가 『아인슈타인』과 『뵈아』等에 對하여 如何한 形으로써 現出할 것인가 이것은 오히려 今後 決定할 問題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처음으로 設定한 物理學型과 生物學型과의 區別로 더욱 □□하게 됨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또 科學 發達의 自然의 □勢에 依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끝)